

정말 억울하고 슬펐다.

오해로 내쳐졌다는 거절감의 상처가 크게 남았다.

내 일생에 큰 아픔이 있었다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내게서 돌아선 거였다. 그는 목사였고, 순수하고 착하며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. 우리는 동역하며 기쁨으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다.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질투를 살 만큼 친했다. 그러던 어느 날, 교회 안에서 일어난 나와 관계없는 일로 그가 오해하기 시작하더니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. 결국 그가 내게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했다. 청천벽력같은 선포였다. 그 후 나는 철저히 홀로 남아 외롭고 고독한 날을 보냈다. 정말 억울하고 슬펐다. 오해로 인해 내쳐졌다는 상처가 내게 크게 남았다.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.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다. 아픔을 잊을 만큼 시간이 지난 어느 날, 그 친구가 찾아와 자신의 실수와 오해로 내게 상처줬던 것에 대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. 정말 훌륭하고 귀한 모습이었다. 6년 만에 쉽지 않은 발걸음으로 와서 용서를 비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다. 나는 그녀를 주의 긍휼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축복했다. 나는 그렇게 내 상처가 다 치유된 줄 알았는데, 내 마음에는 상처와 거절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걸 관계 안에서 발견했다. 삶에 지쳐 힘들다며 찾아온 이들을 위해 함께 울며 기도해주었는데, 회복이 되고 난 이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때 너무 힘들었다. 또 사역에 대해 돌을 던지며 비방하는 일도 빈번했다. 사람들의 배신과 내침이 오랫동안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. '아직도 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훈련이 더 남아 있는 거겠지'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이런 일들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. 그리고 이 일로 힘들어하는 내가 너무도 싫었다. '나는 왜 이리 연약한 걸까?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을 수는 없는가?'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친구에게 내쳐졌던 상처가 내 안에서 다 아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. 친구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고, 나도 그를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머리로만 했을 뿐 마음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이다.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하지 못했다. 나는 치유받고 싶었다. '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. 이 거절감의 쓴뿌리 상처를 다 치유해주세요.' 그때, 주님의 음성이 나를 따뜻하게 에워싸는 게 느껴졌다. '오랜 세월 동안 가시에 찔려 아팠느냐?' '네, 주님, 많이 아팠어요.' '그런데 딸아, 너는 한 번도 그들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고, 네 입술로 이웃을 정죄한 적이 없느냐?' '....'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. 순간 주마등처럼 스치는 기억들이 있었다.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친구를 정죄하던 모습이었다. 내가 그를 찔렀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. 그가 나를 돌로 치고 가시로 찔렀으니 나도 당연히 되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. 그래서 수없이 돌을 던졌고, 가시로 찔렸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. 순간, 큰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다. 진정한 용서는 내가 먼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다. 회개를 통해 내 모습을 깨닫고, 상처의 뿌리가 뽑힌 흔적이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니 진정한 용서가 되었다. 그러자 원망과 억울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.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니 1년 반 전에 암으로 떠난 그 친구가 사무칠 정도로 그리웠다. 이후로는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거절감의 쓴뿌리가 더 이상 날 힘들게 하지 못했다.

-박윤희의 "안고 우는 기도자" 중에서-



창립 1974년 11월 3일

주보 제 44권 28호 2018년 7월 15일

* 표는 일어섬 (Standing if you can)

사회: 기우석 집사

경배와 찬양 (Praise)

* 시작기도 (Opening Prayer)

다같이

* 사도신경 (Apostle's Creed)

다같이

대표기도 (Congregational Prayer)

이우인 장로

교회소식 (Announcements)

사회자

봉헌 (Offering) 71장 (새찬50장)

다같이

* 봉헌송 (Offering Hymn) 1장

다같이

* 봉헌기도 (Offering Prayer)

박태열 목사

성경봉독 (Scripture) 마가복음 12:29-31

다같이

성가대 찬양 (Choir Anthem)

예향찬양대

설교 (Sermon)

박태열 목사

첫 사랑을 회복하세요

네번째: 온 생각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2

파송찬양 (Closing Hymn) 93장 (새찬93장)

다같이

* 축도 (Benediction)

박태열 목사

[예배안내]

주일대예배 / 11am

주일학교 / 11am

중고등부예배 / 11am

[주중예배/모임]

새벽예배 / 5:30am(화-토)

Acts29 기도 / 6am(주일)

수요예배 / 8pm

속회 / 매달 1회 셋째주

성인성경공부 / 1pm(매달 둘째, 넷째주일)

한국학교 / 3pm-6pm(토)

[다음주일 대표기도]

최종인 장로

교회 / 교우 소식

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!

- ◆ 교회벤 구입을 위한 특별헌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헌금봉투에 "교회벤 구입"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◆ "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" 설교시리즈 (mp3)가 담긴 CD가 나왔습니다.
- ◆ 새가족교육이 7월 22일(일) 오후 1시에 시작해서 아래와 같이 4주간 진행됩니다. 1주차: 7월 22일(일) 오후 1시; 2주차: 7월 29일(일) 오후 1시; 3주차: 8월 5일(일) 오후 1시; 4주차: 8월 19일(일) 오후 1시
- ◆ 선교캠프가 7월 24일(화) 부터 27일(금)까지 시카고에 Wheaton College에서 있습니다.
- ◆ 보드워 전도가 7월 29일(일)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.
- ◆ 보드워전도 교육이 7월 21일(토) 저녁 7시에 있습니다.
- ◆ 친교는 박민자 권사님께서, 제단헌화는 최미경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.

[남선교회]

7월 22일(일)에 예정되었던 사택청소가 연기되었습니다. 차후에 새로운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
[재직회]

재직회 모임이 오늘 (7월 15일) 친교후에 있습니다.

부서별 소식

[교우/교역자 소식]

- ◆ 박태익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.
- ◆ 천춘옥 권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.
- ◆ 김옥재 성도님 백내장 수술 받으셨습니다.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.

[선교후원]

- ◆ 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, 주은혜 선교사 (기쁨, 거룩)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"문열림 선교사 가정"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.
- ◆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, 박경선 선교사 (진서, 진후)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"김희기 선교사 가정"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.

[중보기도요청]

- ◆ 찬양사역자, 성가대 반주자, Youth 전도사, Children 전도사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후원할수 있도록 제정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교회벤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월중모임/행사

- 7월 15일(일) 1:00pm 재직회
- 7월 21일(토) 7:00pm 보드워전도 교육
- 7월 22일(일) 1:00pm 새가족교육 1주차
- 7월 24일(화)-27일(금) 미션캠프
- 7월 29일(일) 1:00pm 새가족교육 2주차
2:00pm 보드워전도

지난주일통계

헌금총액	\$1,929.81	출석총인원	31
십일조	\$610	KM 본예배	27
주정(주일)	\$490	주일학교	4
감사헌금	\$580		
선교헌금	\$240.81		
주일학교	\$9		
교회벤구입	\$		

새가족 등록절차 안내

- ◆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.
- ◆ 새가족 등록과정: 새가족 교육 (4주)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.
- ◆ 새가족 교육일정: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.
- ◆ 새가족 환영식: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.

7월 친교 / 헌화

1	연선회집사 / 박민자권사
8	최성혜사모 / 최성혜사모
15	박민자권사 / 최미경집사
22	박영자권사 / 이선회집사
29	최미경집사 / 연선회집사

교회를 섬기시는 이

담임목사:	박태열
교육협동목사:	박태익
지휘자:	연석윤 반주자:
시무장로:	최종인 이건형
원로장로:	이우인
파송선교사:	문열림 주은혜 (기쁨, 거룩)
협력선교사:	김희기 박경선 (진서, 진후)